

사회



상자 한 개에 20억... 지난해 10월 김제시 금구면 이모(53)씨의 마늘밭에서 찾아낸 5만원권 현금 110억 7800만원. 모두 8개 상자 가운데 경찰이 1개를 열어 공개했다. 바닥에 깔린 금액만도 20억원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김제 마늘밭 '돈뭉치' 110억7800만원 캐다

불법도박 수익금 은닉

채남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이는 돈을 마늘밭에 묻어뒀던 이모(53·무직)씨가 숨긴 자금은 총 110억 7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김제경찰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이씨의 마늘밭 주변을 수색해 불법 은닉자금 86억 60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당초 27억원을 숨겼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굴착기 2대를 동원해 밭을 수색한 결과 86억 60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8~9일 발견된 돈까지 포함하면 모두 110억7천800만원이 경찰이 밝혀낸 불법 도박 수익금이다.

추가로 발견된 돈은 5만원권 묶음으로 플라스틱통 등에 24개로 나눠져 밭 가장자리에 묻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채남 이모(48·44)씨 형제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이는 돈 27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24억원을 자기 소유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1천㎡ 규모

의 마늘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 땅은 지난해 5월 큰 처남에게 돈을 받아 구입했다.

이씨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던 큰 처남으로부터 2010년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넘겨받았다. 큰 처남은 이후 종적을 감춰 수배 중이다.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된 작은 처남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구속 또는 수배 중인 채남 형제는 17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이 가운데 110억원가량을 매형 이씨에게 맡긴 것이다.

이 돈을 5만원권으로 바꿔 밭에 묻은 이씨는 최근 2억 8000여만원을 캐내 개인용으로 쓰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초 이 밭에서 작업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52)씨가 돈을 가져간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안씨의 신고로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나원침 (8290) 김중두



여수 車 바다추락 50대 운전자 숨져

11일 오전 9시15분께 여수시 중화동 해상공원 인근 도로에서 백모(50)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 백씨가 숨졌다.

해경은 "승용차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바다로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음주운항 충돌 사고 목포해경, 선원 검거

목포해양경찰청은 11일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목포선적 9급 연안저장 A호 선원 이모(56)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진도군 서방항 인근 해상에서 헬중 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어선을 정박하기 위해 무면허로 운항하다가 정박 중인 다른 어선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병역면제 MC몽 생니 뽑은건 '무죄'

입영연기는 유죄 집유

인기가수 MC몽(본명 신동현·사진·32)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통을 호소해 치과 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이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해

보편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영 연기 혐의에는 "횡수나 기간을 볼 때 연기 처분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연합뉴스

'방사능 철새' 호남 유입 대책 없다

후쿠시마 일대 머물던 수십만마리 9월 홍도·흑산도 등 도착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광주에서도 검출된 가운데,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철새에 의해 방사성 오염 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조류 학자들에 따르면 철새들은 일반적으로 겨울나기를 위해 9~10월 사이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동남아로 이동하기 때문에 철새들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 방사성 오염 여부 및 감염 전파 가능성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번 일본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철새의 감염이나 철새에 의한 방사성 오염 물질 유입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서 검출된 상황에서 철새에 의한 오염 물질 유입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철새 중에는 농어촌 인가 주변의 야산이나 갈대밭·덤불에서 생활하거나 음식쓰레기를 뒤지는 등 사람 주변에서 생활하는 종류도 있어, 만일 철새들이 오염물질을 유입한다면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안군 흑산도에 위치한 국립공원 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해마다 9월과 10월 사이에 일본에서 날아온 철새들이 한반도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날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철새에 의해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철새들이 흑산도·홍도에서 발견되거나 홍도에서 부착한 철새가 일본에서 재발견된 사례가 모두 6차례 있었다.

지난 2008년 9월 1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쇠개비새가 같은해 10월 10일에 홍도에서 발견됐

고, 2004년 10월 24일 시마네현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쇠개비새가 같은해 11월 2일 홍도에서 발견됐다.

2006년 8월 15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알락꼬리부엉이는 같은해 8월 25일 홍도에서 발견됐고, 2007년 7월 24일 일본 돗토리현에서 날아온 제비는 2010년 4월 22일 홍도에서 재발견 됐다. 또 2010년 4월 11일 홍도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검은지빠귀는 같은해 5월 9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포획됐다.

이중 쇠개비새와 알락꼬리부엉이의 경우는 농어촌 인가 근처의 갈대나 덩굴·야산 등 사람 가까이 살고, 지빠귀류는 양파밭이나 파밭 등 경작지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에서 벌레나 구더기를 먹는 등 인간의 생활 환경에서 살아간다.

철새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철새 6마리가 발견된 것은 여

름 철새나 통과새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한국을 통과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철새들이 수십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새 연구기관들이 해마다 인식표를 부착하는 철새들은 8000여 마리이며, 인식표를 부착한 철새가 재발견될 확률은 0.2%에 불과하다.

철새연구센터 채희영 소장은 "철새에 의한 방사성 오염 물질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부 등 관계당국에서도 일본에서 날아오는 철새의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철새들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연구센터 자체적으로 휴대용 계측기를 통해 포획하는 새들에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수환기자 yang@kwangju.co.kr

일본 견학 광양시청 공무원 행방불명

카페리호 CCTV 확인... 실족 등 사고 가능성

일본 견학 길에 오른 광양시청 공무원이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카페리호에서 행방불명돼 관계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1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광양시청 소속 황모(54·6급)씨가 지난 10일 오후 7시10분 광양항을 출발한 광양비치호에 탑승한 뒤 11일 오전 8시30분께 카페리호는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황씨는 일본 견학을 위해 동료 직

원 33명과 함께 이 배에 탔으며, 선내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지난 10일 밤 10시30분까지는 카페리호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황씨가 실족 등의 사고로 인해 바다에 빠져 실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황씨의 실종 사실이 일본에 도착해 확인된 만큼 일본해상보안청과 협력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기숙사 공사 하도급 압력 의혹 전남도교육청 간부 수사

전남도교육청의 한 간부가 학교 기숙사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해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무안경찰청은 11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도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전남지역 모 고등학교에 지역 최초로

한옥기숙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선정된 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남도가 한옥형 기숙사 건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와 적법한 공법을 지닌 업체를 고른 끝에 새 업체를 선정할 것일 뿐, 업체 대표와는 학연, 지연, 혈연 관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스폰서 검사' 정용재씨 실명 공개 책 출간

검사 50여명 등장

지난해 4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용재(53)씨가 스폰서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적시한 책 '검사와 스폰서, 물어버린 진실'(책보세 펴냄)을 출간했다.

책은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정희상, 구영신 씨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씨의 구술을 받아 쓴 책이다.

책 속에는 정씨가 검사 스폰서

가 된 계기와 자세한 스폰서 내역을 비롯해 MBC PD수첩을 통해 세간에 의혹이 폭로된 후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정황이 담겼다.

정씨는 검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일시와 장소, 액수 등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책 속에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실명이 공개된 일부 검사들 외에도 50여 명의 검사들이 실명으로 등장해 당사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 등 파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편의점 금고 여중생이 '아름아름'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중생이 카운터 금고에 설치된 재고정리 시스템을 조작해 금품을 빼돌리다 경찰에 걸렸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여·26)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편의점에서 업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5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215만원을 훔쳤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카운터에 든 현금을 보자 나도 몰래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